

‘연료비 23억 체납’ 목포시내버스 또 운행 중단

목포도시가스, 태원·유진회사 가스비 미납 공급 중단

목포시, 12일부터 비상수송버스 11개 노선 58대 운행

목포시내버스가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이 정상화되지 26일만에 또 다시 멈춰 서면서 목포시가 비상수송대책에 나서는 등 비상이 겹쳤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도시가스 회사에서 10일 오후 5시부터 시내버스 연료를 공급하는 ㈜CNG충전소에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목포시내버스의 연료인 CNG가스는 목포도시가스에서 ㈜그린CNG 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하면 ㈜그린CNG 충전소에서 압축해 시내버스에 공급하고 있다.

㈜그린CNG 충전소와 목포시내버

스 회사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나 버스회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현재 가스비 23억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그린CNG 충전소와 시내버스 회사 측은 미납금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목포도시가스 회사는 채권 확보를 위해 ㈜CNG충전소의 주채무자인 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 운수에 상환에 대한 공중 또는 담보 제공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 6일 이사회를 거쳐 10일 오

후부터 가스 중단을 통보했다.

시내버스의 연료인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목포시내버스는 정상화되지 26일만에 또 다시 멈춰 설 상황이다.

목포시내버스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으며, 수확능력시험을 앞둔 지난달 16일 우여곡절 끝에 운행이 정상화됐다.

목포시는 목포시내버스가 공급이 중단되기 전 충전된 가스로 11일까지 운행하면 오는 12일부터는 비상수송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비상수송차량은 1·1A·2·6·9·11·13·15·20·33·60 등 11개 주요 시내노선(남악·오룡 제외)에 전세버스 52대, 관용버스 2대, 낭만버스 4대 등 총 58대가 투입된다.

다만, 3·7·10·22·108·112·130 등 7개 시내노선과 200·300·500·800·900 등 5개 좌석버스 노선은 운행하지 않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학생의 등하교와 동절기 한파를 고려해 공급중단 유예를 요청했으나 목포도시가스 측에서도 경영상의 불가피함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시내버스 회사 측은 운행 중단의 사유인 가스비 채무상환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영 자구안에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광양 유당공원 알록달록 동물원 ‘눈길’

동지 속 새알·코뿔소 등 상상력 자극 예술작품 가득

광양시가 유당공원을 상상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여행목표에 담을 수 있게 알록달록한 동물원으로 변신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12월 유당공원에서는 지역작가를 포함해 부산, 군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4명(팀) 작가들이 펼치는 ‘광양 유당숲을 거니는 예술동물원’이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에 마모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작가는 비옥한 퇴적물 대신 쌓인 생활폐기물에서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을 목도하고, 생명과 자유를 향한 가능성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강윤문, 방우승, 위재한, 아트주+이이남스튜디오 등 개념 있는 작가들이 자연과 환경, 동물과 인간에 대해 던지는 질문을 담은 3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눈으로만 감상해야 했던 기존 전시와는 달리 만져보고 체험하는 등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전시여서 어린이 관람객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함평,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50개 사업·총 사업비 4717억원 규모

함평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24년도 국고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

함평군은 8일 “2024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가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의 함평군수와 최·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26건 1,990억원, 계속사업 24건 2,727억원 등 총 50건 4717억원 규모의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발굴·논의했다.

이날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해보면 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175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100억원) ▲생태계보전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80억원) ▲석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정비사업(96억원)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 공모사업(700억원) 등이다.

주요 계속사업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00억원)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313억원)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259억원) ▲내교 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435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타사별 검토를 거친 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함평=김용희 기자

해남 ‘내년 산업관광 육성사업’ 공모 선정

‘해남막걸리와 제철진미잔치’ 해남시투어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이 2023년도 산업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산업관광 육성사업은 기업체, 산업단지 혹은 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하여 체험형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관내 주조장과 먹거리 지원을 연계한 ‘해남 막걸리와 제철진미잔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이 지원,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와 PT 발표를 통과해 해남군과 산청군 등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은 관내 주조장을 연계해 해남 막걸리의 맛을 알리는 막걸리 시티투어를 개발하고 지역별 해남의 먹거리 자원을 발굴해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철진미잔치’를 통해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초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 보완하고 상반기 내 산업관광 관광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화순군-엘리체 레저, 골프장 증설 투자협약

시설투자 800억·고용인원 120명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군이 지난 9일 골프장 운영업체인 엘리체 레저(유)대표 류채봉)와 시설투자 800억 원, 고용인원 12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은 엘리체레저(유)에서 화순군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른 것으로 2028년까지 춘양면 양곡리 일원에 91만5251㎡의 18홀 골프장 증설과 골프텔, 클럽하우스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업체에서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생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골프장 추가 조성으로 군민 건강은 물론 세수 확대와 골프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체레저(유)의 골프장 증설 사업 완료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군민 우선 채용과 지역기업 이용, 화순품 이용 등 운영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엘리체레저(유)는 현재 화순 엘리체컨트리클럽 18홀을 운영 중인 연 매출 약 1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선물세트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화순=유정현 기자

강진,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 ‘시동’

강진원 군수, 고흥 녹동항 방문 선장들과 면담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강진군이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6일 고흥 녹동항을 방문해 강진 출신 바다낚시 어선 최기남 선장과 면담을 가졌다.

녹동항은 지난 11월 1일 클린 국가 어항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곳으로, 강태공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강 군수는 “마량항은 일년내내 낚

시가 가능한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바다 환경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군은 앞으로 바다낚시 어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대거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행보로 강진군은 지금까지 수산업 위주로 진행돼 온 군의 어촌개발사업이 해양 레저 관광으로 대전환될 것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25만 명이던 낚시 인구는 올해 973

만 명으로 늘어나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군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낚시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바다낚시 어선 전용 접안시설을 설치해 일반 어선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마량항 이전 바다낚시 어선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강 군수는 최 선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완도항, 녹동항, 여수항 등에서 1000명 이상의 온라인 모임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낚시 어선 선장들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낚시 동호회와 SNS를 중심으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는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 위한 관광객 증대와 낚시 도구 판매 등 지역 상가 소득 증대 등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미래의 큰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내일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다”며 “마량항이 갖고 있는 잠재에 기반 시설을 확충해 매력적인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시정연설서 ‘8대 군정 운영 방향 제시’

“해양치유시설 본격 운영·전남체전 개최 등으로 군 발전 앞당길 것”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9일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군수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 경제 회복과 물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난대수목원에 이어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해양수산물물관 유치,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5건의 현안 사업이 현 정부 국정 과제 반영되는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군 발전을 앞당길 8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미래 100년을 위한 일지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및 유기수산물 인증 확대, 완도형 ESG 경영, 완도그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으뜸 한우 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형 웰니스 관광자원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자 2023년을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의 해로 선포하고, 해양·산림치유, 관광자원 연계 여행 상품 개발,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물관 건립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에 행정

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 농공단지 입주 기업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내년 5월, 설근 이래 처음 군에서 열리는 전남도민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안전·경제 체전으로 개최하고,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전남 정인 페스티벌 개최,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 지원 등 문화·교육 분야에도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군이 이번에 군 의회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올해 본예산보다 16.6% 증가한 6406억 원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 71개 마을공동체 행복한 어울림 ‘따순 큰잔치’ 성료

올해의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시민과 함께 공유

순천시가 지난 8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따순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따순’은 따뜻한 순천의 줄임말로, ‘따순큰잔치’는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공동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행

사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공동체가 만드는 연극 공연 ▲공동체 교류 워크숍 ▲우수 마을공동체 유공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고, 2022 마을공동체 활동 기본 교육인 ‘따순마을학교’ 수료식과 연계해 개최했다.

특히, 공동체 교류 워크숍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동체 활동 중에

느꼈던 점을 서로 공감하고 각각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재능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간 다름을 활용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마을활동가 수료생들이 지역 단체 및 상인들과 함께 마을 투어를 운영한 ‘따순만사’의 사례와 다문화 주민들의 재능나눔으로 마을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효정문화교류회’의 사례를 전달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순천=조순익 기자

무안,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시설 지도점검

무안군은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등불기 안전점검과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관리와 투명한 시설운영을 확보해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포함 총 8개소이며 각 시설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여부 점검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기압 여부와 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인력 확보, 건축물 및 소방 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진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종합 지도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수영장 내년 1월 3일 개장·회원 모집

광양시는 2023년 1월 3일 수영장 개장을 목표로 수영장의 성공적인 개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채용, 시설물 보강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황스포츠클럽 수영장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강증진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총 222억 원(국비 60억, 시비 162억)이 투입돼 2022년 7월에 완공됐다. 성황스포츠클럽(수영장)은 총면적 5,906㎡,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50M 10레인인 유아풀도 구성돼 있으며 449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도 성황스포츠클럽(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의 각종 프로그램 모집은 오는 12월 9시~16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모집은 광양시 홈페이지 배너에 안내된 공지사항에 따라 접수하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성황 다목적체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추첨을 통해 1월 회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희망자들은 참가가 가능하다. 수영장은 시간별로 초급, 중급, 상급, 고급, 합반(초·중급, 중·상급, 상·고급), 아쿠아로빅 반별 25명씩 모집하고 체육관은 에어로빅 반별 30명씩, 요가는 반별 2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박상춘 체육과장은 “시는 내년 개장을 맞아 개관 첫 달인 1월 한달간 이용객들의 이용료를 50% 감면한다”면서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용희 기자